**하이델 베르그 요리문답 (The Heidelberg Catechism)**

**<제 2 부> 구원**

**서른 번째 주일(주의 날) (LORD’s Day 30)**

**80문) 주님의 만찬이 로마교회의 미사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답) 주님의 만찬은 다음의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드린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이 완전히 용서받는 일을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 (1)**

**둘째,**

**그리스도의 참 몸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셔(3), 거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며, (4)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미사는 다음의 것들을 가르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 사제들을 통하여, 날마다 계속하여 (희생제물로) 바쳐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죄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빵과 포도주로 바뀌어 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바뀌신 몸이시므로) 예배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사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만 드린 희생제물되심과 그분의 한 번만 당하신 고난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참조 성경귀절들:
(1) 마태복음 26:28; 요한복음 19:30; 히브리서 7:27; 9:12, 25-26; 10:10-18.**

**(2) 고린도전서 6:17; 10:16-17.**

**(3) 요한복음 20:17; 사도행전 7:55-56; 히브리서 1:3; 8:1.**

**(4) 요한복음 4:21-24; 빌립보서 3:20; 골로새서 3:1; 데살로니가전서 1:10.**

**Question 80. What difference is there**

**between the Lord's Supper and the papal mass?**

|  |  |
| --- | --- |
| **Answer:**

|  |
| --- |
| **The Lord's Supper testifies to us,****first,****that we have complete forgiveness of all our sins through the one sacrifice of Jesus Christ,****which He Himself accomplished on the cross once for all; 1****and, second,****that through the Holy Spirit****we are grafted into Christ, 2****who with His true body is now in heaven****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3****and this is where He wants to be worshipped. 4****But the mass teaches,****first,****that the living and the dead****do not have forgiveness of sins****through the suffering of Christ****unless He is still offered for them daily****by the priests;****and, second,****that Christ is bodily present****in the form of bread and wine,****and there is to be worshipped.****Therefore the mass is basically****nothing but a denial****of the one sacrifice and suffering of Jesus Christ,****and an accursed idolatry.**  |

 |

**Bible References:**

1. **Matthew 26:28; John 19:30; Hebrews 7:27; 9:12, 25-26; 10:10-18.**
2. **1 Corinthians 6:17; 10:16-17.**
3. **John 20:17; Acts 7:55-56; Hebrews 1:3; 8:1.**
4. **John 4:21-24; Philippians 3:20; Colossians 3:1; 1 Thessalonians 1:10.**

로마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 희생제사로서의 미사(제사의식)이다. vs. 개혁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 희생제사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축하하는 시간이다:

1) 제단에서 바치는 희생제사물이다. vs. 주님의 식탁에서 축하하는 식사이다;

2) 사제가 날마다 빵을 뗄 때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반복하여 피없이 바치는 제사의례이다. vs. 모든 희생제사를 대신하여 단번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3) 예수님의 희생물을 날마다 피없이 반복하는 제사없이는 산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죄용서함이 없다. vs. 모든 피없이 축하하는 주님의 만찬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4) 빵과 포도주의 속성들이야 바뀌지 않았지만, 냄새도, 맛도, 촉감도, 색깔 등등도, 하지만 그 실체들을 사제가 제사드릴 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vs. 주님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의 실체와 속성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 빵과 포도주는 단지 단번에 희생제사물로 죽으심과 예수님의 수난을 상징하는 표식들일 뿐이다;

5) 빵과 포도주라는 물체 - 피조물을 예배하는 우상숭배이다. vs. 주의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가 표식하는 실체로서 하늘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예수님을 예배한다.

(The Romish church has a mass as a sacrifice vs. Reformed View has the Lord’s Supper as a celebration hour and occasion:

1. It is a sacrifice at the altar vs. a celebrated meal at the Lord’s Table;

2. It is a daily non-bloody repetition of Jesus’ sacrifice on the cross whenever the bread is broken by the priest vs. a remembrance of Jesus’ once for all sacrifice;

3. Without this daily non-bloody repetition of Jesus’ sacrifice,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s for the dead and the living vs. Every non-bloody Lord’s Supper testifies to us that all our sins are completely forgiven once for all;

4. The attributes of the bread and wine are unchanged and same, like smell, taste, texture, color, etc., but its essence has changed into the real body of Jesus Christ vs. The essence and attributes of the bread and wine remain same always at the Lord’s Supper and are nothing but signs of Jesus’ Suffering and once-for-all death;

 5. Worship of the matter – bread and wine - creatures vs. Worship of invisible Jesus, the Creator in Heaven signified in the bread and the wine at the Lord’s Meal Table.)